군부대 앞 천막법당의 애끓는 사연

김포 연운사, 군부대 반대로 증축 난항…국민 청원 불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6년 화재로 법당 소실 후 한파 속 천막에서 신행활동을 이어오는 불자들의 애끓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김포 연운사 불자들. 김포 연운사는 2013년 장성 백양사가 김포지역에 세운 도심포교당이다. 연운사에는 1600세대 4000여 신도들이 신심으로 자비실천을 펼치고 있다. 이들 연운사 불자들은 2016년 원인불명의 화재로 법당이 전소된 이후 천막법당에 다니며 독거어르신 밑반찬 봉사, 지역 복지관 자비의쌀 전달, 연탄 전달 등 자비실천에 앞장서 왔다.

신행의 중심이 사찰이기에 이들 불자들은 십시일반 정재를 모아 사찰을 재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연운사가 위치한 지역이 육군 17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던 것. 연운사는 당초 지상 1층의 법당을 세우기로 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지만 군부대는 증축시 전방에 유입되는 적에 대한 관측 및 사계에 제한이 간다며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연운사는 2017년 12월 지하 1층으로 된 반지하 법당 건축계획을 다시 군부대에 제출했지만 군부대는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2017년에 신축된 연운사 주변 건물상황

연운사가 제공한 사찰주변 현황 사진.

2016년 화재로 기존법당 전소
증축 계획 냈지만 군부대 반대
부대 측 "증축 넓어 시야 방해"
연운사 "지하 강요, 국민청원"


원명 스님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은 "기존 법당과 높이가 같을뿐더러 지표에서 1m밖에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시계에 가린다는 논리로 군부대가 법당 건립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부대는 법당에서 떨어진 주차장 기준으로 지표고도를 측정, 법당의 실제 고도가 5m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산사의 경우 일주문에서 고도를 잰단 말인가"라며 군부대가 소위 '갑질'을 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특히 연운사 인근에는 지상에서 1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찰에 대한 편향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사단 측은 "관측과 화력운영 제한으로 부동의 입장을 낼 수 밖에 없다. 주변 높은 건물은 30평 이내 건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창고건물의 경우 30평으로 여러 동을 지은 뒤 이를 합해 운영해 군부대의 답변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원명 스님은 "그렇다면 법당도 30평 규모로 여러채를 지으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군부대에서는 반지하법당도 허가하지 않고 사실상 지하 벙커법당을 지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운사 경내에는 군부대 측이 사찰 입주 당시 벙커와 진지 또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연운사는 청와대 국민청원(me2.do/x4tcezsu)을 진행 중이다. 원명 스님은 "종교활동 보장 및 군사보호 제한 완화, 그리고 법당 건립 승인 및 연운사 내 벙커 폐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미남불,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8일 회의서 지정예고키로 결의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월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보물로 지정예고키로 결의했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조각의 중요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다.

9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해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불상은 1913년 경 경주에서 반출되어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검토를 하며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地) 등에 분포한 경주 지역 암질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조사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원위치 확인을 위한 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추본, 남북불교 교류 재개 나선다

2018년 1차 정기이사회서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 협의

조계종 대북교류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북 교류 재개에 나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8년 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8년 주요사업으로 △남북불교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대북지원협력사업 △남북불교 공동행사 △통일교육 및 기획사업 △본부운영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설정 스님과 사무총장 진효 스님, 이사 혜자 · 진각 · 종훈 · 원명 · 금곡 · 계호 스님, 고유환 교수와 감사 심재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히 민추본은 올해 남북불교문화재 교류협력사업에 힘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금강산 신계사 건축물 진단조사 및 보수공사와 개성지역 사지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불교문화유산 공동보존 관리에 관한 정책협의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 무산됐던 신계사 복원 11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동시)법회도 재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추본은 남북불교 공동행사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남북불교대표단 서울-평양 상호교차방문, 8.15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서산대사 남북합동다례재,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 등을 진행한다.

설정 스님은 "2018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희망적인 해라는 기대가 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남북간 평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돼 민추본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올해 3월 이사 임기 만료 예정이던 지홍 · 혜자 · 금곡 · 계호 스님과 고유환 교수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2월로 감사 임기 만료 예정이던 심재환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도 연임이 확정됐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동국대 본관서 개신교 예배라니…

최근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감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국대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8명의 충원 대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노동자들은 1월 29일부터 동국대 본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감축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한다. 10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고 입학금도 폐지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의 책임을 하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청소노동자들의 주장과 비판도 일견 타당하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화로 협의 ·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존중을 위해서는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동국대 본관서 시위 중인 청소노동자들은 그 선을 넘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2월 4일 오전 11시 본관 3층에서 인권활동가로 잘 알려진 A목사를 초청해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A목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A목사는 "청소노동자 중 개신교인들의 주일 예배 요청이 있었고 이를 응했다"고 밝혔다. '불교종립대학 본관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요청이 있으면 개신교 종립대학에서도 스님이 법회나 강연을 진행하지 않는가. 어려운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교 등 다른 종교들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며 "이번 예배로 불교를 폄훼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목사의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개신교 종립대학에서 스님을 초청해서 법회 · 강연을 여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의 동의를 얻고 이뤄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종교 사학에서 중심 건물인 본관을 다른 종교의 예배나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도 없다.

청소노동자들의 동국대 본관 예배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했다. 사회노동위 관계자는 "불교도 파업 사업장에서 법회를 열지만, 되도록 건물 밖에서 봉행한다"면서 "일반 사업장은 종교와 크게 상관없음에도 조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학생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국대 재학생은 "지금 시위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관련 문제로 이뤄졌는데 왜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다. 공식적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예배 행위는 시위의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며 "불교종립학교에서 목사를 불러 예배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내 주장이 존중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동국대 본관에 목사를 불러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학교를 조롱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학내 구성원인 청소노동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처주는 것이 좋은 시위 방법인가. 그렇게라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ade Buddha for Universal PEACE
만다라 불빛을 보여주시는
"SBS 세상에 이런일이" "MBC 월드리포트" "YTN 뉴스" 방영 등
제드붓다 (비취불상) 마지막 친견 기회
비취원석으로 조성된 무게 4톤, 높이 2.7미터 세계 최대 비취 불상
티벳불교 선승인 '라마조파 린포체'께서 조성 '달라이라마' 존자님 증명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23개국 30만 ㎞ 순례후 마지막 순례지 부산 도착
비취부처님 친견으로 새해 소망 꼭 이루세요
장 소 : 부산 기장(동부산) 롯데몰 사거리 특설관 (오시리아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기 간 : 2018년 3월 4일까지
문 의 : 010-5795-5466 | 위원회 : 032)522-5553